

# 전통의 멋·흥으로 등 밝힌 광주천

빛고을관동회, 전통등 전시회  
300m에 전례동화 모터브 구현  
20일 민주광장서 어울림마당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광주천은 환한 불빛으로 물든다. 따스한 불빛은 지치고 허허로운 마음을 다독인다.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올해 5월 27일)을 앞두고 불을 밝힌 전통등들이다. 흘러가는 물에 비친 등은 형상도 색도 제각각이다. 마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우리들의 세상 같다. 모양도 색도 각기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따스하다는 것이다. 먼 곳에서 극락을 찾지 말고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선 그 자리에서 불을 밝히고 따스함을 나누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주천에서 '빛고을관동회 전통등'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문화축제인 '빛고을관동회'는 통일신라말 창건한 대항사를 중심으로 봉축행사를 이어온 지 1300여 년 시간이 흘렀다.

빛고을관동회 봉행위원회(회장 도성스님)가 주최하고 광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28일까지 광주공원 인근 광주천에서 펼쳐지는 전통등 전시회는 동화 속 전래 이야기를 담은 전통등을 볼 수 있다.

약 300미터에 이르는 광주천 2개 블록을 장식한 전통등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구현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는 전통등 포토존과 전통등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등이 설치돼 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중 오는 20일(오후 5시) 옛 대항사가 있던 터인 5·18민주광장에서는 빛고을관동회 어울림마당이 예정돼 있다.

5·18민주광장에는 전통한지로 만든 화염사4사자3층석탑이 세워져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탑인 화염사4사자3층석탑은 광주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와 어울림마당은 우리의 전통과 멋, 흥을 느낄 수 있는 문화축제다.

지난 13일에는 광주천 위 원형다리에서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지역 음악 뮤지션과 문화단체, 불교문화단체들의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돼 눈길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광주천을 환하게 물들인 전통등 모습.

끌었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전통등이 자리한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등을 밝혀왔다. 등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를 넘어 사람과 생명이 어울리는 문화의 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오는 20일에는 시민과 불자들이 구성된 연희단이 참여해 어울림마당을 펼친다.

광주불교연합회장인 도성스님은 "이번 어울림마당은 전문공연단이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는 참여형 행사"라며 "참여자가 함께하는 전체운동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율동으로, 빛고을관동회만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울림마당에서는 관음사 연희단을 비롯해 불교연합 연희단, 증심사 연희단, 향림사 연희단,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연희단 등 각 연희단의 공연과 카드섹션, 전통춤과 전통춤을 개량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어울림마당 이후에는 관동법회가 진행된다. 이번 관동법회에는 광주지역 사찰 스님과 불교신도, 기관 단체 등 5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행사는 삼귀의례, 잔불가, 반야심경, 관불(부처님 목욕의식), 환영사, 봉행사, 축사, 재화, 점등선언순으로 펼쳐진다.

오후 7시 20분부터는 연등행진이 예정돼 있다. 광주지역에 1만개 행진등을 밝혀 행진하는 행사다. 광주불교계는 백제, 고려, 조선시대에 이어져왔던 연등행진을 일제 강점기를 지난 1960년대 복원해, 1300여 년 이어온 연등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은 "연등행진은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의 중요한 행사로 각 등에는 광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택배기사' 한국 SF 부진 씻나

넷플릭스 비영어권 TV부문 시청시간 1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택배기사'가 참신한 소재와 볼거리를 앞세워 공개 첫 주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SF(Science Fiction)가 겪어온 부진을 씻어낼지 주목된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5월 8~14일 '택배기사'의 시청시간은 3122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가장 많았다.

넷플릭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청시간을 집계한다. 이를 고려하면 '택배기사'는 지난주 금요일인 12일 처음 공개되고도 주간 최다 시청시간을 기록해 일단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에서도 '택배기사'는 공개 이틀만인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TV 부문 2위를 기록했다. 집계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15일을 제외하면 3일 연속 2위에 오른 것이다.

'택배기사'는 해상 충돌로 지구가 멸망한 지 40년이 지난 2071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부족해진 생필품과 산소를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폭력집단 '헌터'와 사투를 벌이는 택배기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드라마는 제작비 25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참신한 설정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사막이 된 서울 속 미래 거주 구역의 모습, 액션 장면 등 여러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반 흥행 면에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택배기사'가 "한국은 SF의 불모지"라는 팬들의 아쉬움을 떨쳐낸 만한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국내 SF 콘텐츠 가운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다. 프랑스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

만화를 원작으로 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2012)가 유일하게 흥행에도 성공하고 작품성도 인정받은 사례로 꼽힌다.

특히 OTT의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국내에서 콘텐츠의 소재가 차츰 다양해지고 SF물도 제작이 활발해졌으나 장기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2021)는 송중기와 김태리, 유해진, 진선규 등 대세 배우들을 내세웠으나 5일 동안 넷플릭스 전 세계 1위에 올랐다가 자리를 내줬다. 올해 초 넷플릭스가 공개한 영화 '정어리' 역시 10일 만에 글로벌 10위 밖으로 순위가 밀렸다.

시리즈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드라마 '고요의 바다'(2021)는 넷플릭스 시청 시간 전 세계 3위를 최고 기록으로 남기고 2주 만에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티빙 드라마 '윤더'(2022), 디즈니+ 드라마 '커넥트' 등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한국의 콘텐츠가 줄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근까지도 유독 SF 장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합뉴스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싱글 17위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7위로 8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전주보다 두 계단 오른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핫 100' 8주 연속 진입은 2020년 블랙핑크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ICE CREAM)과 같은 기록으로, K팝 걸그룹 최장 타이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큐피드'는 고백을 거절당한 후의 마음을 솔직

하게 노래한 곡으로 듣기 편한 멜로디를 앞세워 틱톡 등에서 BGM(배경음악)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무엇보다 복고풍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신스팝 곡으로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청량한 느낌을 준다. 신스팝은 전자 악기의 일종인 신시사이저를 사용한 팝 음악을 아우르는 장르다. 1970년대 말 처음 등장해 80~90년대를 주름잡았던 신스팝은 최근 복고 열풍과 듣기 편안한 음악을 찾는 수요와 맞물려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모자녀 1:1 코칭 등 진행

부모자녀 1:1양육코칭 및 진로적성컨설팅으로 진행되는 재직자 여성을 위한 돌봄지원서비스가 운영된다. 일명 '사랑의 새일센터'.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김명화 센터장·광산새일센터)는 여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으로, 재직자 여성을 위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성고용유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새일센터'는 재직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계기로 경력단절 예방과 장기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허그맘 수완센터와 협약해 맺

고 부모자녀1:1양육코칭 및 진로적성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자녀 관계상향 및 자녀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 가족간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재직자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